

웅진케미칼, 임금동결 대열 합류

노조 자발적 임금동결 선언 ... 노사화합 및 경영 안정화 주력

웅진케미칼 노조가 4월1일 구미공장 대강당에서 <노사 한마음 선포식>을 열고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노사화합 문화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배인호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있어야 조합원이 있고 조합도 살 수 있다”며 “웅진케미칼의 역량을 믿고 다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에 박광업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두의 열정과 역량을 모아 경영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자”고 화답했다.

웅진케미칼은 2000년 워크아웃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2008년 1월 웅진그룹에 편입됐다.

2008년에는 매출액 8503억원, 영업이익 298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으로 3년 만에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영업실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기존 사업뿐 아니라 환경과 IT소재 등의 신규사업을 강화함으로써 2010년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의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1>